

안방극장 스타 작가 몰려온다



'눈물의 여왕' '다 이루어질지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응답하라' 시리즈, '동백꽃 필 무렵', '낭만닥터 김사부', '사랑의 불시착', '더 글로리'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제작들을 탄생시킨 스타 작가들이 올해 줄줄이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박지는 작가가 가장 먼저 시청자들을 만난다. 오는 9일 방송되는 tvN 새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통해서다.

'눈물의 여왕'은 3년 차 부부가 아찔한 위기를 헤쳐 나가는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김수현과 김지원이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박 작가는 익숙한 사랑 이야기에 독특한 설정을 추가해 로맨스극의 열거를 흥미롭게 바꿔 놓는 능력으로 내놓는 작품마다 히트시켰다.

외계인과 여배우의 러브 스토리를 그린 '별에서 온 그대', 인어 이야기를 소재로 한 '푸른 바다의 전설', 북한 장교와 남한 재벌 상속녀 사이의 로맨스를 담은 '사랑의 불시착' 등이 그렸다.

신작 '눈물의 여왕'은 도도한 재벌 3세와 용두리 마을에서 나고 자란 '개천황'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김지원이 일생 무릎 한 번 굽힐 일 없이 살아온 퀸 그룹의 재벌 3세 흥해인을 연기하고, 김수현은 시골 가장 아들인 퀸즈 그룹의 법무 이사 백현우를 연기한다.

대본 집필 전 평소 캐스팅하고 싶은 여자 배우를 떠올리거나 직접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진 박 작가는 여자 주인공의 심리를 섬세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특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예능 작가 출신인 만큼, 언어유희나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통해 심어놓는 '웃음 코드'도 보는 재미를 높인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예고편들은 벌써 조회수 수십만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귀재라 불리는 김은숙 작가가 올해 신작 '다 이루어질지니'를 선보인다.

'다 이루어질지니'는 감정이 지나치게 풍부

김은숙·박지는·임상춘 작가 등 신작 로맨스·모험·판타지·전공의 생활 등 소재 김수현·김우빈·수지 등 캐스팅도 화려

한 랩톱의 정령 지니와 그랜 지니를 꺼내 준 한 여자가 세 가지 소원을 놓고 벌이는 이야기를 담는다.

분노 폭발과 전의 상실을 오라기락하는 지니 역에는 김우빈이, 지니를 형벌에서 꺼내준 가영 역에는 수지가 나선다.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에서 두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춘 지 7년 만이다.

김 작가는 독특하면서도 귀에 쏙히는 대사가 특징적이다. '시크릿 가든',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 로맨틱 코미디를 주로 써왔는데, 작품마다 유행어를 탄생시켰을 정도다.

남녀주인공만큼 매력적인 조연 캐릭터들을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것도 김 작가의 큰 장점이다. 탄탄한 필력으로 쌓아 올린 살아있는 캐릭터들이 시너지를 내며 극에 생동감을 더한다.

'다 이루어질지니'는 김 작가와 이병헌 감독의 신선한 조합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드라마 '스물', 영화 '극한직업' 등을 만들어온 이 감독과 김 작가가 어떤 합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임상춘 작가의 신작 '꼭삭 속았수다'도 올해 기대작으로 손꼽힌다.

'쌈, 마이웨이', '동백꽃 필 무렵' 등을 써온 임 작가는 이번엔 '미생', '시그널', '나의 아저씨' 등을 만든 김원석 감독과 손을 잡았다.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을 제목으로 내세운 이 드라마는 1950년대 제주에서 태어난 반항아 애순(이지은 분)과 무쇠처럼 말없이 단단한 관식(박보검)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다.

필명으로 활동하는 임 작가는 아직 성별도, 나이도 밝힌 적이 없다. 박지는, 김은숙 작가와 비교해 활동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평범한 일

상에서 따뜻한 감동을 자아내는 특유의 필력으로 탄탄한 팬층을 쌓았다.

'쌈 마이웨이'의 고동만(박서준), '동백꽃 필 무렵'의 황용식(강하늘)에 이어 '꼭삭 속았수다'의 남자 주인공 관식도 순박한 성격의 캐릭터다. 바라는 것 없이 일평생 오로지 애순만을 사랑한다.

직접 극본을 쓰지는 않더라도,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는 작가들도 있다.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를 만든 강은경 작가는 JTBC에서 방송 예정인 드라마 '히어로가 아닙니다만'의 크리에이터를 맡았다. 남다른 능력을 지녔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했던 남자가 마침내 운명의 그녀를 구해내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로, 장기용과 천우희가 호흡을 맞춘다.

강 작가는 드라마 '미스터', '부부의 세계' 등에도 크리에이터로 참여했는데, 두 작품 모두 큰 화제를 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를 만든 이우정 작가도 돌아온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의 스펀프(파생작) 격인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에 크리에이터로 참여했다. '대세 배우' 고유정을 필두로 신인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작품이다.

제작진은 "좋은 의사를 꿈꾸는 레지던트들이 '진짜'가 돼 가는 과정을 담았다"며 "저출산 시대 속 비인기과에 당당히 들어선 레지던트들의 삶을 조명하는 만큼 현실 세계를 반영한 실감 나는 이야기들로 찾아갈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OTT 드라마도 '재벌 사랑'

디즈니+, 경영권 다툼 다룬 '로얄로더' 공개



재벌 자녀가 형사가 돼 사건을 해결하는 수사물 '재벌X형사', 재벌 3세인 친구와 위장 결혼하는 단역 배우의 로맨스 '웨딩 임파서블', 재벌가를 차지하기 위한 밀바닥 인생들의 싸움을 그린 누아르 '로얄로더(사진)'.

한국 드라마의 재벌 사랑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TV 드라마가 재벌을 소재로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 비교적 다양한 장르를 공급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도 재벌 드라마가 등장했다.

2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글로벌 OTT 디즈니+가 1·2회를 공개한 '로얄로더'는 세 명의 주인공이 재벌가 왕좌를 차지하고 인생 역전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과정을 다룬 누아르물이다.

'로얄로더' 1·2회는 본격적인 이야기에서 앞서 주요 인물들의 배경과 이들의 관계를 주로 설명했다.

다양성이 강점인 OTT 오리지널 시리즈의 경우 재벌 소재 드라마가 많지 않은 편이지만, TV 드라마에서는 재벌이 등장

하는 작품을 찾기 어렵지 않다.

현재 방영 중인 SBS의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는 재벌이 형사가 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룬 수사물이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tvN의 '웨딩 임파서블'은 재벌인 친구와 위장 결혼하려다가 예비 시동생과 사랑에 빠지는 단역 배우의 사연을 다룬 로맨틱 코미디다.

재벌가를 다룬 드라마가 계속 제작되는 이유는 꾸준히 시청자에게 사랑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재벌가의 이야기는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화려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재벌X형사'나 '킹더랜드' 등 일부 드라마에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범죄자를 재벌이 재력과 권력으로 응징해 통쾌함을 주기도 한다.

부정적인 묘사는 현실에서 벌어진 재벌가 일부의 비도덕적·탈법적 행태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장됐거나 근거가 빈약한 측면도 있고 시청자의 인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 영화 엑셀런스상' 이영애

아시아 필름 어워즈

오는 10일 홍콩 시퀀서에서 열리는 제17회 아시아 필름 어워즈의 '아시아 영화 엑셀런스상' 수상자로 배우 이영애(사진)가 선정됐다고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2일 전했다.

아시아 영화 엑셀런스상은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전반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아시아 영화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는 이영애를 포함한 배우 2명이 수상자로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상자는 오는 4일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 홍콩국제영화제, 도쿄국제영화제는 2013년 아시아 영화 발전을 위해 '아시아 필름 어워드 아카데미(AFAA)'를 설립했고, AFAA는 매년 아시아 필름 어워즈를 개최하고 있다.



이영애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2000), '봄날은 간다' (2001), '친절한 금자씨' (2005), '나를 찾아줘' (2019) 등에서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였다.

그는 최근 드라마 '마에스트로' (2023)에서 세계적인 여성 지휘자로 열연했고, 2003년 일인 '대장금'의 후일담을 다룬 '의녀 대장금'으로 복귀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솔러지 건조기 등

태리인더스트리

- 1997 태리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관리분류,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표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자·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자·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아동 프로그램지원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보편적교육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